

‘문학들’ 1회 문학상...장진기 시인 수상

‘어린 시절 별밤을 창틀에 걸어 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 작품상

광주지역 종합문예지 ‘문학들’의 올해의 작품상 첫 수상자로 장진기 시인이 선정됐다. 종합문예지 문학들은 장진기 시인의 시 ‘어린 시절 별밤을 창틀에 걸어 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가 제1회 문학들 올해의 작품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다음달 8일 오후 5시

30분 광주 금남로 한 식당에서 열리며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또 소설 부문의 김지원 작가, 시 부문 전경숙·송하얀 작가에서 신인상이 수여된다. 장 시인의 작품은 2021년 가을호(통권 65호)에 발표됐으며 ‘철저한 고집과 고독이 주조한 저 깊은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라는

표현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이다. 장 시인은 전남 영광 출생으로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철산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사슴파리 빛는 입자’ ‘슬픈 지구’ ‘화인’ ‘꽃무릇, 지는 꽃도 피는 꽃처럼 사랑하는가’를 펴냈다.



장진기 시인 /문학들 제공

문학들은 광주·전남 지역에 발행되는 종합문예지로 지난 2005년 가을호로 창간됐으며 이번 수상작과 심사평, 수상소감 등은 여름호(통권 68호)에 실린다. /김용범 기자

포토뉴스



송정동, 마을 공유공간 ‘활짝’ 광산구 송정동에 나눔으로 더욱 풍요로운 공동체를 키워나갈 거점이 28일 문을 열었다.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가 마을복지계획을 통해 마련한 ‘공유 공간’은 물품이나 식물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설치했다. /이동기 기자

목포대 도서관문화원 ‘섬 아카데미’ 유네스코 인증 획득

“육지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섬에 대한 자긍심 고취”



목포대학교는 도서관문화원의 ‘찾아가는 섬 아카데미’가 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글로벌 교육의제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한국적 맥락에 걸맞게 이행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인

중 제’ (Korean UNESCO ESD Official Project)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신규 인증된 ‘찾아가는 섬 아카데미’는 지리적으로 고립돼 교육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섬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교육·문화적으로 소외된 섬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 육지 중심의 사고를 탈피해 섬에 대한 자긍심을 고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문화연구원의 섬 인문학 사업의 사회적 확산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원은 섬 지역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섬 아카데미(지역민 대상) ▲찾아가는 섬 인문스쿨(섬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섬 포럼(섬 주민 대상)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17가지 목표 가운데 양질의 교육,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등의 부문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에 따라 연구원은 향후 3년간 프로젝트와 관련해 ESD인증제 공식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 산하 국내외 ESD 네트워크 활동과 사업 참여 기회를 얻는다. 홍석준 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의 환원 및 사회적 확산에 대학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순천국유림, 장마·태풍 대비 사방사업 추진 완료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올해 사방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한 사방사업은 사방법 신설(4개소), 계류보전 사업(1.08km)이다. 아울러, 기존 시설인 사방법, 계류보전 등 사방시설 130개소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을 끝냈으며, 산사태현장에방단과 산림재해대책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취약지역(132개소)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에 인한 산림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태풍의 관문인 전남 동부권 지역이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방 장학회, 광양시 옥룡면에 장학금 후원 광양시 옥룡면은 지난 27일 옥룡면사무소에서 오석현 발전협의회장, 전재수 주민자치위원장, 오길식 전남도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서선우 사랑방 장학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옥룡초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3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양=조순희 기자



진도군축구협회, 진도초 축구부 등에 후원금 600만원 전달 진도군 축구협회가 최근 진도초등학교 진도이 축구단과 4개 축구 클럽에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박영수 회장은 4개 축구 클럽에 1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동호인 화합과 멋진 활약을 당부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섬진강 시인 삶의 지혜 듣는다

내달 총 5회 개최...매주 금요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오는 7월에도 금요조찬포럼 개최를 정상적으로 이어간다. 광주경총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여는 ‘금요조찬포럼’을 7월 중 총 5차례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포럼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되며, 광주 첨단지구 내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다. 7월 첫 포럼은 1일 열린다. 조영근 하이터치경영연구원장을 강사로 초

빙해 ‘성공을 부르는 운의 힘’에 대해 듣는다. 8일 예정된 두 번째 포럼은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의 성공신화’에 대해 강연한다. 세 번째 포럼은 15일 열린다.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이 강사로 출연해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를 주제로 삶의 지혜를 알려준다. 22일 네 번째 포럼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웰다

잉, 존엄사,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7월 마지막 포럼은 29일 열린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가 강사로 나서 ‘유머 감각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광주경총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주 국내 최고의 각계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초청해 금요조찬포럼을 열고 있다. 올해까지 32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에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공식인증을 받기도 했다. /권형안 기자

인사

신안군

◇서기관전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박영철 ▲행정지원과(도서관연구지원과) 강정태 ▲행정지원과(신안문화원) 고인호

◇사무관전보

▲민원봉사과장 김근성 ▲행정지원과장 이영욱 ▲홍도관리사무소장 정승일 ▲지도읍장 김영택 ▲신의면장 박재욱 ▲안전건설과장 박은용 ▲하이먼장 조영일 ▲의회사무과장 고성민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운기 ▲교통지원과장 박부일 ▲도조면장 강용남 ▲장신면장 최환웅

건강보험공단·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6월 24일 ESG 기반의 균등한 관광기회 제공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랜선-나들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랜선-나들이’는 코로나19 확산

동구 관광박람회 ‘최우수 마케팅상’ 수상

동명동 커피시음·관광상품 적극 홍보...관광객 유치 총력



동구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년 제37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7회째를 맞은 서울국제관광박람회는 대규모 관광박람회 중 하나로 40여 개국, 400여 개의 국내·외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매년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발맞춰 라이브커머스, 토크 콘서트, 관광상품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동구는 이 기간동안 박람회 홍보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동명동 드립커피 시음 체험을 비롯한 포토존 운영, SNS 포토 이벤트, 5·18전주광장에 위치한 빛의 분수대 등 해시태그 이벤트 행사를 펼쳤다. 이 중 동명동 카페의 거리 내 커피 전문점에서 제조한 커피를 증정해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동명동 카페의 거리의 커피 맛과 향기에 매료돼 동구 홍보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빛의 분수대 테마 1박 2일 광역 시티투어 ▲추억의 총장축제 ▲동명동 카페거리 ▲3박 4일 동네 한 바퀴 생활 관광 상품 등을 알리고 SNS 해시태그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해 눈길을 모았다. /김도기 기자

순천교육, 고교학점제 공동교육 운영위원회

고교학점제 순천 선도지구 사업 공유·공동교육과정 협의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 관내 일반고 교감 및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고교학점제 순천 선도지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위원회는 학교별 상호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을 통한 학생 수요 맞춤형 교과목 개설 확대를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 단위 개설이 어려운 소수 선

과목 및 심화 과목을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2022학년도 1학기 순천의 경우, 총 30과목 개설되어 40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순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2022년 상반기 고교학점제 순천 선도지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교육협력센터 운영, 단위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학교 간 교류 협력 활성화,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순으로 안내하고,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별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순천=조순희 기자

광양교육청, 초기 문해·수해력 역량강화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대상 내달 1일부터 운영



광양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 희망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초기 문해력 및 수해력 역량강화 직무연수(7회, 21시간)를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에서 운영한다. 초기 문해력 역량강화 연수는 지난 13일부터 초기문해력의 이해와 읽기 진단, 한글의 특성과 음운인식, 음운변동, 읽기 이해 전략 등을 중심으로 4회(12시간), 1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수해력 연수는 놀이와 조작활

동 등을 통해 덧셈과 뺄셈·곱셈적 수감각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1.2학년 교육과정을 고려해 학년별 3회(9시간), 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1~2학년 담임교사들은 연수 받은 내용을 해당 학급에서 실행하고, 피드백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광양=조순희 기자